**장애란 무엇인가?**

**1. 장애의 개념과 정의**

**1) 장애의 개념**

일반적으로 장애(障碍)란 ‘가로막아서 중간에 거치적거림’을 뜻한다. 예를 들어 “부정부패는 사회발전의 장애요소이다.” 혹은 “장애물 경주에서 누가 우승하였는가?” 등의 말에서, 장애는 ‘저해하다’, ‘거치적거리다’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면 장애인(障碍人)이라는 말의 ‘장애’도 같은 의미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부정부패는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장애물은 달리는 사람에게 거치적거리는 물건이다. 다시 말해서 장애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장애’는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장애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즉, 장애의 방향이 본인 내부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와 같은 존재도 아니요, 장애물 경주의 ‘장애물’처럼 거치적거리는 존재도 아니다. 다만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데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본에서는 장해(障害) 혹은 장해인(障害人)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우리말로 장애인은 ‘거리껴서 해가 되는(障害)’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장애의 종류에 따라 불리ㆍ불능ㆍ혼돈ㆍ결함ㆍ박약ㆍ지체 등이 장애 영역에 따라 달리 사용된다. 핸디캡(handicap) 혹은 불리라는 말은 생활환경의 열악함 또는 사회 전반의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여 겪는 불편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말은 주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쪽 팔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팔다리가 멀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핸디캡을 가질 수 있다. 장애(disability)은 능력장애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에서 사용된다. 혼돈(disorder 혹은 disturbance)은 신체적 측면보다는 정신적 측면을 두고 하는 말인데, 정서장애(emotional disturbance) 혹은 행동장애(behavior disorder)에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손상(impairment)은 의학적 개념으로서 신체기능이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나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와 같은 감각장애 영역에서 주로 사용된다. 지체(retardation, delay)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는 말인데, 이전에는 박약(薄弱)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박약이라는 말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할 뿐 아니라 고정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이유로 비판받아 왔다. 오늘날에는 지능 혹은 발달이 지체되어 있을 뿐이라는 보다 긍정적인 지체라는 말로 대체되었는데,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나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에서 사용된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그 방향이 내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장해가 아니며,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장애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다만 ‘차이가 있는 사람’일 뿐이다.

**2) 장애의 정의**

(1) 세계보건기구의 정의

장애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를 손상(impairment), 장애(disability), 핸디캡(handicap)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손상(impairment)은 심리ㆍ해부학적 기능 상실 혹은 이상(異常)을 의미한다. 둘째, 장애(disabilities)는 손상으로 인한 기능의 제한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는 의학적 판단과 더불어, 정상적인 활동 수행 능력이 제한 또는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셋째, 핸디캡(handicaps)은 손상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시 불편을 겪는 사회적 불리를 말한다. 이 정의에서는 손상이나 장애의 측면보다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강조하였다.

1997년 WHO는 장애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즉 장애를 손상(impairment), 활동(activity), 참여(participation)의 3개 축으로 설명하여 장애의 개념을 크게 확장하였다: 첫째, 손상(impairments)은 신체 구조나 물리적, 심리적 기능상의 상실이나 비정상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상의 제한, 신체의 부분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불능을 말한다; 둘째, 활동(activity)은 개인적 수준에서 기능의 범위와 본질로서 일상생활과 관계된 개인의 활동을 다룬다; 셋째, 참여(participation)는 손상, 활동, 건강조건, 생활요인과 관련한 생활상황에서 개인의 연관성 정도와 본질로 정의한다.

2001년 세계보건기구는 5년 동안의 현장 검증과 국제회의를 거쳐서「기능, 장애, 건강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를 제안하였다. ICF는 건강과 건강관련 영역의 분류 체계인데, 장애를 건강상태의 문맥에서 손상, 활동, 참여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손상(impairment)은 신체구조나 생리적ㆍ정신적 기능의 상실 혹은 비정상을 말하는데, 절단이나 시력 상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활동(activity)은 개인의 수준에서 기능의 종류와 범위를 말한다. 활동적인 것은 종류, 기간, 질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자조 능력이나 직업 유지 등의 제한이 그 예이다; 셋째, 참여(participation)는 손상, 활동, 건강상태, 문맥상 요소와 관련해서 삶의 영역에서 개인의 참여의 종류와 범위를 말한다. 참여는 종류, 기간, 질에 있어 방해를 받을 수 있는데, 지역사회 활동 참여나 운전면허 취득 등을 들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정의 및 분류

우리나라에서 장애의 법적 정의는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0517호 일부개정 2011. 03. 30)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법 제2조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면서,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으로,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 일부개정 2010. 07. 12.)의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는 ① 지체장애인 ② 뇌병변장애인 ③ 시각장애인 ④ 청각장애인 ⑤ 언어장애인 ⑥ 지적장애인 ⑦ 자폐성장애인 ⑧ 정신장애인 ⑨ 신장장애인 ⑩ 심장장애인 ⑪ 호흡기장애인 ⑫ 간장애인 ⑬ 안면장애인 ⑭ 장루ㆍ요루장애인 ⑮ 간질장애인이다.

**2. 장애인 수**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137,226명으로 추정되었다. 2008년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은 4.59%로, 일본(2000) 4.7%, 독일(2003) 10.2%, 미국(2000) 19.3%, 영국(2004) 19.7%에 비해 낮은 편이다.

<표 1>은 2008년 우리나라 주요 장애유형별 인구를 나타내고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지체  장애 | 뇌병변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지적  장애 | 정신  장애 | 기타 | 전체 |
| 전국 추정수 | 1,132,116  (53.0%) | 219,156  (10.3%) | 220,061  (10.3%) | 207,383  (9.7%) | 140,079  (6.6%) | 84,780  (4.0%) | 133,651  (6.3%) | 2,137,226  (100.0%) |

출처: 변용찬 등(2009).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장애 명칭**

**1) 장애 명칭의 장ㆍ단점**

명칭은 사람을 부르는 이름을 뜻하는데, 본디 이름이란 사물의 핵심을 일컫는 말로서 다른 사물과 구별하기 위한 칭호를 말한다. 명칭은 개인이나 특정 사물에 붙여지기도 하지만, 집단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 명칭을 붙이는 것(labeling)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명칭을 붙이는 것은 장애인을 옹호할 때도 필요하고,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나 치료 분야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이나 사회보장 등과 같이 법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명칭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낙인 효과(stigma effect)이다. 즉, 명칭은 그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선입견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하여 대부분 오명으로 각인되는 것이 보통이다. 장애 명칭의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장애 명칭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기대치를 형성한다. 그런데 교사가 학생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그 학생의 성적도 향상된다는 소위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를 생각할 때, 장애 명칭의 단점은 명백해진다.

▪ 장애 명칭은 교사로 하여금 학생의 행동을 과장되게 해석하게끔 하는데, 장애 명칭이 붙여진 학생의 행동에 대해서는 과민반응을 보이게 된다.

▪ 장애 명칭은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

▪ 장애 명칭은 경도장애학생들마저도 다른 학생들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경도장애학생들은 때로는 느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또래학생들과 동일한 발달단계를 거친다.

▪ 장애 명칭은 장애범주를 반영하여 붙여지기는 하지만, 그 범주라는 것이 실제적이지 못한 추상적인 개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 장애 명칭은 부모에게 학습문제에 대한 멍에를 씌운다. 그런데 학생에 대한 명칭이 잘못 붙여진 경우도 많고, 교사들 또한 그 장애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장애 명칭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멍에를 쓰고 살아가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2) 인간우선언어**

인간우선언어(person-first language)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기술할 때 잠재의식적으로 나타나기 쉬운 비인간화 현상을 피하고자 하는 영어의 언어학 규범 중의 하나이다. 이 용어는 미국의 장애인 옹호단체들이 1988년에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간우선언어는 사람을 앞에 놓고 상태를 뒤에 놓는 문장 구조가 기본이다. 예를 들면, "disabled people"이 아니라 "people with disabilities"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 아이는 ADHD다.” 또는 “저 아이는 다운 아이(Down's kid)다.”라고 말해 왔다. 인간우선언어는 장애가 아니라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의 장애를 말하는 기술하는 형태이다.

인간우선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언어 사용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개인의 대한 존중감을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왔다(Vergason & Anderegg, 1997).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사람들은 아예 장애인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Wolfensberger, 2002). 따라서 장애인과 그의 부모, 장애옹호단체 등 그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바람직한 언어 사용에 대한 시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보다 넓은 아량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거나 경험이 부족하여 악의 없이 바람직하지 않는 용어로 장애인을 지칭하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비방해서는 안 된다.

**4. 한국인의 장애인관**

장애 혹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안목, 이것을 흔히 장애인관이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및 인간관은 종교나 철학의 동향, 사회ㆍ경제적 조건 등에 의해 형성된다. 고대와 중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에 대한 보호사상의 일단이 부분적으로 엿보이기는 했으나, 역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일반적 통념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러면 부정적 장애인관의 형성 요인은 무엇이며, 한국인의 장애인관은 어떠한가?

**1) 부정적 장애인관의 형성 요인**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장애인관의 형성 요인으로 완전인간의 지향, 보편인간의 지향, 인간소외의 가치 기준, 건강 개념의 왜곡 등을 들 수 있다(이규태, 1981).

가) 완전인간의 지향

개성이 평가받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개성 지향보다는 완전 지향을 추구하게 된다. 완전주의란 부족함이 없는 것 혹은 결함이 없는 것을 지향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완전주의를 지향하는 의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인의 밥상은 전혀 개성을 무시한 채 고루 갖추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출판계의 전집물이나 신혼가구를 세트로 마련하는 경향도 완전주의를 지향하는 의식구조의 전형이다.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의 이상적 인물은 오체구족(五體具足)에 잘 생기고, 공부도 국어에서 도덕까지 다 잘하며, 성실하고 인정 많은 등 그 모든 것을 완전히 갖춘 인간이다. 어떻게 보면 완전인간이란 전혀 개성이 없는 인간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완전주의는 인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완전’의 결여인 장애에 대해 비가치화하고 경멸하며 편견을 갖게 하는 근본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완전주의 사회에서의 장애인은 개별자요, 불완전 인간이다. 그들은 항상 남 다름의 평균과 동질에서 결격되고 소외당한 개별자이기에 수치심을 갖게 되고, 이 수치심이 열등감으로 정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나) 보편인간의 지향

한국인의 사고방식의 동일성 가운데 하나로서 이질성을 배척하고 동질성을 별나게 강조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동질의식이 강할수록 동질적이고 평균적인 보편성의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며, 평균에서 일탈된 이질성의 것일수록 비가치화한다. 따라서 평균인간·동질인간·보편인간을 지향하게 되며, 그 기준에서 일탈될수록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전통적 농경사회는 노동력을 무엇보다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개개인은 이목구비(耳目口鼻)가 바르고 수족이 건강한, 육체 노동력을 지닌 평균인간이어야만 했다. 곧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육체적 조건이 맨 먼저 요구되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농사노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평균인간 이하의 장애인이 소외당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다) 인간소외의 가치기준

인간소외의 가치기준, 즉 다른 사람과의 상대비교는 인류가 타인을 인식하기 시작한 때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대비교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믿는 것에서 일탈되었을 경우에는 평가 절하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 때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며 모호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말은 옳다고 여기면서도 실제로 인간소외의 가치기준에 의해서, 즉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인간을 평가하는 것이 보통인데, 아마도 그 이유는 ‘평등’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연유하는 듯하다. “하늘 아래 있는 어떤 사물도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데 어떻게 평등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사고방식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소외의 가치기준, 즉 계급ㆍ인종ㆍ빈부 등에 의한 차별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라) 건강 개념의 왜곡

사람들은 막연히 병이란 두렵고 피해야 할 나쁜 것이고, 건강이란 무조건 추구해야 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본래적인 자기를 상실하고 자기소외감 속에서 자기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욱 건강이라는 빈 말에 분별을 잃고 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 건강이라는 말은 일상적인 용어로 개념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건강’은 “몸에 탈이 없고 튼튼함” 혹은 “정신적·육체적인 이상 유무를 주안(主眼)으로 본 몸의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건강을 의미하는 영어의 ‘health’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며, 독일어의 ‘Gesund’는 “정신이나 육체가 건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어느 나라든 건강은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이라는 말은 사실명제(事實命題)가 아닌 최고가치(最高價値)를 나타내는 말로서, 그 판단기준은 상황에 따라 인간이 정하기 나름이다.

이처럼 건강이라는 말이 신체적·정신적 양 측면을 포함할 뿐 아니라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을 경우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판단이다. 양쪽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눈 내린 한라산 정상을 오르는 뇌성마비인과 머리 좋고 사지도 멀쩡한 사기꾼 중 누가 더 건강한 사람인가?

**2) 한국인의 장애인관**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인의 장애인관, 즉 장애인을 바라보는 안목이 부정적이라는 자조 섞인 말을 자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눈이 그토록 부정적인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혹은 부정적 장애인관의 근원을 한국인의 의식구조에서 찾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힘이 세고 건장한 사람이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신체가 완전하지 못한 장애인들은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전주의를 지향하여 책을 사더라도 한 질로 사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만 보기는 어렵다. 몇 해 전 서울의 모 백화점이 무너진 후, 어느 신도시의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까지도 고려하지 않은 물질만능의 사고 결과인 것이다. 하물며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반대하는 것쯤이야 다반사일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이다.” 혹은 “한국인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많다. 오천 년 유구한 역사에 걸쳐 우리 민족은 자신보다 더 못한, 더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더불어 살아 온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동정심이 많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정서인가.) ←삭제

그런데 장애인 혹은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동정은 이제 그만!”이라 적힌 플래카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동정은 앞에서 말한 우리 민족 고유의 아름다운 정서로서의 동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이 거부하는 동정이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포장된 동정심의 행위를 일컫는다.

어떤 사람들은 서구 선진국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사상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자괴적인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은 민족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더불어 살아 왔다. 그와 더불어 인권사상도 어떤 나라들보다 못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두 살이라고 한다. 어머니 뱃속에 있던 10개월을 한 살로 쳐주고 있는 바, 이것은 태아도 인격을 지닌 엄연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나이를 말할 때, 몇 년 몇 개월이라고 말한다. 태아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사회는 장애인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그런 측면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높아서만은 아닐 것이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도 아닐 것이며, 더욱이 본래 인권사상이 더 높기 때문도 아닐 것이다. 다만 법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법이 아니면 하루도 지탱하기 어려운 나라이다 보니, 장애인에 대한 대우도 법으로 정하기만 하면 잘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애인관이 부정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또한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다는 식으로 말할 필요도 없다. 물론 낙인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는 본래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는, 우리 민족만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정서가 가득 차 있다. 언젠가는 그 마음들이 밖으로 표출될 것으로 믿는다.